



4면

전북대, 글로벌30 성공 추진 실행 동력 모은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음 11월 4일) 제38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우범기 전주시장이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 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서(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 책 문화의 가치 확산

우범기 시장, '함께라서(書)'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책 드림·책 나눔·책 누림 등 3대 전략 8개 과제 추진

전주형 복지 '함께 시리즈'와 책을 통한 상생경제 새바람

책의 도시 전주시가 독자 소외계층과 청소년 일반 시민 누구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상생과 나눔 운동인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책 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서(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며 전국적인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형 복지정책인 '함께 시리즈'와 더불어 새롭게 추진하는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는 책을 통한 상생경제의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개방형 창의도서관 등 시설 개선 △특성화도서관 조성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전주독서대전·전주책페 등 책문화산업 3대 축제 정착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책공20 △도서관 여행 콘텐츠

다양화 등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시는 이렇게 축적된 책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올 연말부터 △책 드림 △책 나눔 △책 누림의 3대 전략 8개 과제로 구성된 '함께라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식 나눔의 시민참여 독서 후원 활성화를 위한 '책 드림' 전략에는 △책 한 권이 전하는 따뜻한 내일 '서(書)프라이즈' △동네서점 청소년 도서나눔 캠페인 '책 사줄게' △지역서점의 착한 환원 '책공20+' 캠페인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 3개 과제는 시민과 기업, 지역서점 도서관이 함께하는 도서 후원을 통해 책의 도시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독서문화를 맘껏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독자 가치 시민 실천 운동인 '책 나눔' 전략에는 △다 읽은 책의

새활용 실천 '지구 책장(지구사랑 책장터)' △다 같이 봐요 '시민 가치서'가 △지혜를 나누는 서재 '전주시민서고'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책 나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기후 문제 해결과 지식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끝으로 책의 도시 생활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책 누림' 전략에는 △책을 여행하고 머무는 '북스테이 전주' △책으로 떠나는 북박뿌리 전주 산책의 2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주형 책가반 도시 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기록의 도시이자 완관본으로 출판산업을 이끌던 출판의 도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책의 도시로서 독서문화의 가치를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연계해 미래세대의 글로벌 K-콘텐츠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꿈을 키우며 상생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는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는 전주 책 문화산업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을 국가 피지컬 AI 수도로 키우겠다”

민주이원택 의원, 이 정부 피지컬 AI 전략 관련 “실증부터 산업까지 선순환 체계 구축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설립 추진·피지컬 AI 통합 관제센터 구축·특별법 제정 나설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피지컬 AI 강국 전략과 관련해 전북을 실증에서 산업까지 하나로 묶어주는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피지컬 AI 수도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사진 3면>



이원택 의원은 “이 정부 국가 차원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전북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교육·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22일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지컬 AI는 로봇·공장 등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전북의 핵심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전북을 선도적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이 정부 국가 차원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전북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교육·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이 정부 국가 차원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전북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교육·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이 정부 국가 차원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전북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교육·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이 정부 국가 차원의 ‘한국피지컬 AI 연구원’ 전북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교육·실증·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 ‘피지컬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피지컬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형 디지털 AI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시군별 AI 교육 거점 등을 통해 학생과 소상공인, 재직자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단계별·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민들, 일상 속 삶의 만족도·행복감 상승

울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교통·의료·보육·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상승했고, 소득과 여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중 2만833명이 응답 △교육 △보육 △의료 △주거·교통 △환경 △문화 △안전 등 7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이 6.8점으로 2023년 대비 0.2점 상승했고, '지역생활 만족도'는 6.7점으로 0.3점 상승했다. '여제의 행복'은 6.8점으로 0.3점 증가한 반면, '여제의 걱정'은 3.4점으로 0.5점 낮아지는 등 도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3%로 '23년 대비 5.6% 증가했고, 소득 만족도 역시 3.4% 증가한 28.7%로 나타나는 등 소득 여건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보육·교육 부문에서는 미취학 아

동 보육환경 만족도가 61.5%로 '23년 대비 10.7%p 상승했다. 공교육 만족도의 경우 34.2%로 전주기 대비 0.2%p 소폭 증가했다. 평생교육 이용률은 '23년 16.7% 대비 6.4%p 증가한 23.1%로 나타나 성인 학습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에 대한 도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주거·교통 여건에 대한 체감 만족도도 개선됐다.

환경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2023년 대비 상승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와 교통사고 건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야간 보행 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감소했다. 화재 발생 건수도 줄었으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체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한 줄 소식

민주, '2차 종합특검' 발의... "14개 의혹 수사대상 명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